

대행 스님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근본 자리에다 되돌려 놓고 지켜보는 사람이 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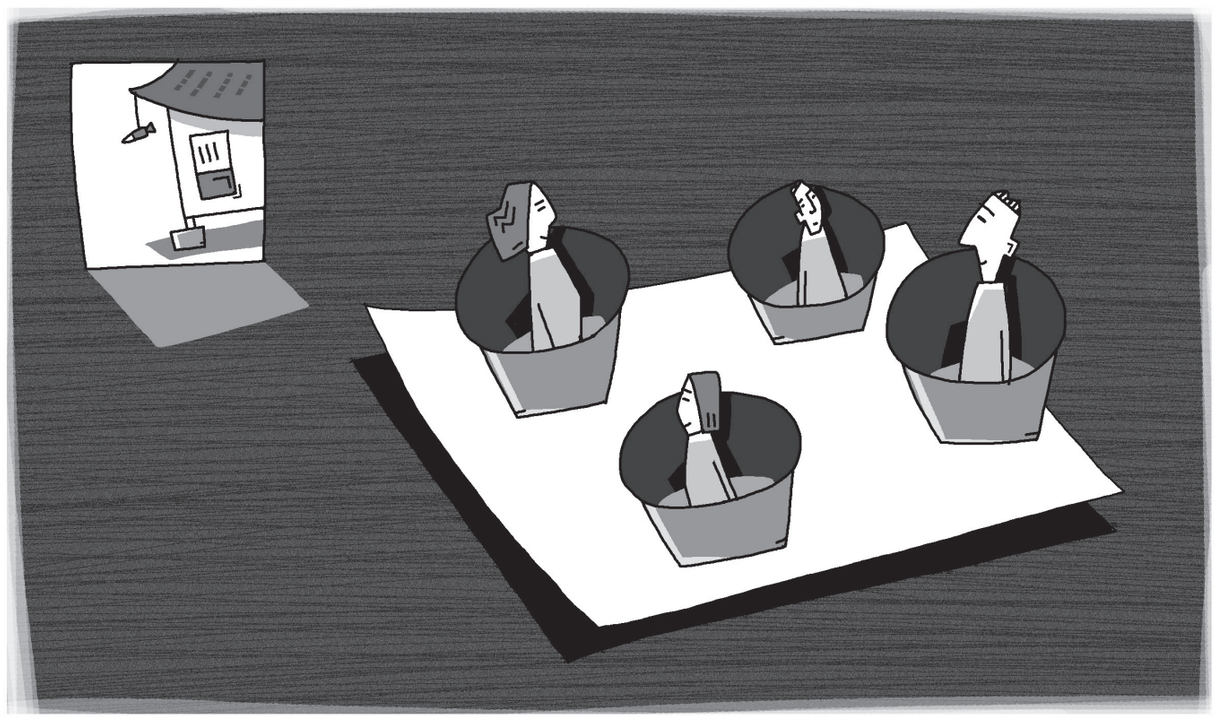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닌 도리를 공부하시는데 때로는 너무 힘들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힘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활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활 빼놓고 무슨 부처님 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종교라는 것도 없고 법당이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형상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얘긴데 우리가 돈오(頓悟)라는 것은 위에서 그대로 깨쳐서 실천을 해 내려오는 과정을 말하고, 점수(漸修)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깨달아서 올라가는 것이 점수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단번에, 찰나에 그냥 깨치는 것은 깨치되, 깨치게 되면 하나로 돌아가는 거를 알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에다가 집중해서 실천을 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깨달아 올라가는 것도 실천을 하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거든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든 둘이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에 생활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 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안 계시다면 부처도 없습니다. 부처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생활 자체가 그대로 법입니다.

그대로 부처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항상 말하지만 어떠한 애고라든가 업보가 닥쳐오고 용도에 따라서 피치못할 일들이 닥쳐오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그냥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마음이라는 거를 그냥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 마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마음이라니까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 게 마음인 줄 알지 마시고요, 똑바로 진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살아나가다 보면 애고(哀苦)가, 큰 것 작은 것 할 것 없이 애고가 다가오는데 그것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 달리고 코 달리고 귀 달리고 육근(六根) 육진(六塵) 육식(六識)이 충만한 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수를 모르고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이 가정을 등한시하고, 자식이나 남편 또는 부인이나 자식을 등한시하고 화가 나면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욕해 버리고 아무렇게나 야단쳐 버립니다.

그런데 첫째는 내가 말을 그렇게 한다면 마음에 입력이 된다는 것을 꼭 아셔서 조심해야 합니다. 입력이 되면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나오고 더디 나오고 이것뿐이지, 그대로 입력이 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를 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정진한답시고 또는 밤 정진 한답시고, 기도 간답시고 가정을 등한시하고, 남편과 자식을 등한시하고 또는 부인과 자식을 등한시하고 이렇게 해서 그,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즉 말하자면 외로움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가서 외식을 하게 됩니다. 남편들은 나가서 간식을 하게 되고 자식은 나가서 방황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스님네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스님네들 이 도량이 둘이 아니라고 봅니다. 둘이 아니기에 아픔도 둘이 아니요, 가정이 파탄되는 것도 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안방에 들어가면 안방이 법당이요, 변소에 가면 변소가 법당이다.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법당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요. 내가 없다면 모든 게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산란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거기다 되돌려놓고 지켜보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 도량에 왔다가도 빨리 다녀가면 되는 것을, 그저 밤에도 정진한답시고 가정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과 남편을 배고프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요. 그전부터도 내가 밤 정진을 시키지 않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모두가 자기 가는 곳마다 부처가 계신데, 어떻게 밤에 여기서 정진을 한다고 해서 부처님이 자기를 돌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다고 해서 안 돌보겠습니까? 처처마다 부처고 처처마다 도량이고, 처처마다 자기가 그대로 법인데!

요즘 종교로 인해서 가정파탄이 나는 집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전부터도 그것을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절에 기도 들어간다, 기독교나 가톨릭교도 '기도 들어간다, 산기도 간다' 이럭하고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니면서 허황되게, 그렇게 자기의 진실을 찾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지팡이로 세우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헛된 시간을 보내면서 가정의 남편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모든 것을 등한시하면 기도를 아무리 백 번 천 번 해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안팎이 다 화목하고 아주 즐겁게 아무 외로움이 없이 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 그런 길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고, 행동에 달려 있고, 말에 달려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식탁 위에나 냉장고 문에나 글씨를 크게 해서 써 놓고 "얘들아,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나가니,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널 사랑해!" 하고 크게 써 붙여 놓고 나온다면,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마음의 그 에너지! 즉, 광력의 힘이 거기까지 미쳐 바로 그거를 떼어 보는 순간에 바로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을 하지 않게 되죠. 남편이고 자식이고 부인이고 모두가 말입니다.

여자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하루 24시간이 고달팠어도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했듯이, 말 한마디를 하게 되면 하루 24시간의 피로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솟아오릅니다. 애들이 이탈되는 것도 부모의 책임이 99%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양으로 나온 애들입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양으로 남편들이 그렇게 되고 부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참지 못하고 불끈불끈 내뱉고, 있는 정 없는 정이 다 떨어지게 만들고, 여자나 남자나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애들이 보고 배우는 게 뭐겠습니까?

종교라는 것이 절에 나와서 기도나 하고 정성이나 들이고 이러는 게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는 것은 이 우주 전체에, 인간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 세상에서 살고 돌아가는 이 자체가 종교입니다, 불교고. 지난번에 여기서 밤 정진을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굳이 말릴 필요는 없겠지만, 말려야 되겠습니다. 한 발짝 떼어 놓고 가는 것도 정진이요, 보는 것도 정진이요, 앉는 것도 정진이요, 눕는 것도 정진이요, 서는 것도 정진이고 일하는 것도 정진인데, 어떻게 그렇게들 생각을 하십니까?

항상 여러분한테 길을 가다 넘어지면 길을 짚고 일어난다고 말을 했죠. 그랬는데 허공을 허우적거리고 일어나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돼도 이만저만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있을 시간이 있다면, 바로 그 시간에 남편과 자식들을 돌보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태도가 그대로 정진입니다.

그거를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거지요. 자기 하나로 인해서 일체 만법이 벌어지고 일체 만법이 작용이 되고 일체 만법이 들고 나는 겁니다. 빛보다 더 빠르다고, 심력은 그렇게 빠르고 그렇게 힘이 있다고 항상 말을 했지요. 그랬는데 몇 시간 동안을 여기서 정진한답시고 졸고 자고 온통 그저 말 수단으로 말 오고 가는 데에 전념을 다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모두 하나하나, 항상 말하지만 화가 나고 어떠한 잘못이 있고 하늘이 무너지고 깨지고 이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다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맡겨 놓고,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행동, 부드러운 뜻을 가지고 모든 것은 한군데서 일체 만법이 나고

☞ 22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